

양돈업계에도 기상 이변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양돈업이 순풍에 돛을 단 듯 어려움없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하게 마련이고 그 시련을 통하여 체질이 강화된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쟁이라는 시련과 가격이라는 시련을 모르기 때문에 붕괴된 것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문제이다. 제1차 석유파동이 왔던 '73년의 경우 갑자기 사료가격이 폭등하여 자본력이 약한 많은 양축농가가 쓰러졌고, '78년의 경기 이상과열로 인한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은 '79년의 돼지고기를 가져와 자돈을 산에 버리는 등 비극이 뒤따랐다.

금년에도 우리 업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TGE, PRRS, PED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병이거나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고, 이러한 손실 위에 7~8월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외화내빈이다. 값은 괜찮지만 질병 피해로 소득은 없기 때문이다.

이제 9월부터는 출하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실명제와 이상 기온에 의한 식량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등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4개월 후에는 또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희망에 새힘으로 출발해야 하지만, 양돈업계의 일기예보는 그렇게 맑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크고 작은 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사료가격의 인상 전망이다.

미국 곡창지대의 대홍수로 곡물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중국의 경우도 감수 또는 국제시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때 옥수수의 경우 톤당 105\$ 하던 것이 115\$ 선으로 올라간 것 등이다. 다행히 미국의 재고량이 많아 앞으로 구매방법에 따라 태풍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냉장돈육의 수입개방과 수입쇠고기 구매방식의 일부 변화에 따른 문제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축구팀을 초청한 적이 있는데, 브라질 축구팀에는 축구 황제로 불리는 펠레도 선수로 있었다. 한국대표축구가 막강한 브라질팀과 싸워 어떻게 견디어 낼까가 관심이었는데, 시험 결과는 한국인 주심이 펠레를 철저히 방어하여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긴 일이 있었다. 이러한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에 의존한 한국축구는 한동안 발전을 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냉장육

“

냉장육 수입에 양돈농가들이
 각종 비관세 장벽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내실있는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양돈 생산성면에서 세계 선두의
 위치에 있는 일본이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전략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농장관리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단체를 통해 제반 생산비 인상 요인을 줄여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남은 4개월을 천금같이 활용하면서
 태풍의 방향, 세력 등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에 귀기울여 나가자.

”

수입에 양돈농가들이 각종 비관세 장벽에 의존하고, 스스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내실있는 발전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유통구조 등으로 냉장육이라는 태풍의 위력이 상당량 약화되리라는 기대는 하지만, 국내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과 부분육의 수입으로 피해가 클 것 만은 확실하다.

또한 금년에 한우전문판매점의 설치로 한우값이 크게 상승하고, 수입쇠고기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다행인데, 앞으로 SBS쿼타에 의해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쇠고기가 수입될 때 시장 상황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나라별 육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돼지값이 우리보다도 저렴하고, 대만의 돼지값이 우리보다 높은 것 등은 우리가 관심있게 살펴볼 문제이다.

특히 일본의 양돈이 생산성에서 세계 선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세계 최대의 돈육 수입국으로 전략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농장관리가 중요하지만, 농장에서

모든 1두당 자돈을 20두 이상 출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생산자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내기 위한 내부적,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모래와 같은 생산자를 뭉치게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자조금제도가 있는 나라가 발전하고, 이러한 제도가 없는 나라는 쇠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양축농가의 숙원인 부가가치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 생산비를 절감하여 환율 등으로 제반 인상 요인을 줄여나가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아가야 하겠다.

새해에는 금융실명제로 유통구조에 변화가 오고, 모든 것이 양성화 되어가는 방향에서 양돈업의 새로운 내실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련들이 양돈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4개월은 천금같이 활용해야 할 것이며, 태풍의 방향, 세력 등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에 귀기울여야 한다. ㉞